

매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효과 <2>

침묵의 나선이론/다원적무지이론/제3자효과이론

김 미 성 / 미디어 연구자

1

침묵의 나선 이론

엘리자베스 노엘 노이만

노엘 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의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theory)은 매스 미디어의 여론형성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매스 미디어가 여론의 지지도나 반대도와 같은 의견의 분포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의견이 우세한 여론에 속하면 그 의견을 더욱 밝히도록 하고 자신의 의견이 열세에 속하면 침묵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노이만의 주장이다.

1980년의 지미 카터와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선거전은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그러나 서독의 마인츠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 노엘 노이만은 대부분의 선거관계자들이 잘못된 질문을 던졌다고 보았다. “누구를 뽑을 것인가?”라고 묻기보다는 “누가 이길 것 같은가!”라고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선호도가 거의 같게 나타났어도 레이전이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정치적인 분위기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특히 그들이 예측하는 결과가 선거의 진짜 결과를 미리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카터의 경우가 그러했다. 선거 전날 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카터에게 와서 이번 싸움은 끝났다고 말했다. 많은 유권자들이 레이전에 대한 마지막 지지에 동참하고 있었다. 다음날 실제 투표는 역시 공화당의 압승으로 나타났다.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은 여론의 성장과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독일의 갤럽조사기구라고 할 수 있는 알렌스바흐 연구소(Allensbach Institute) 설립자이자 소장인 노이만은 여론의 위력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녀는 철학자 존 로크와 마찬가지로 여론을 사람을 줄세우는 실제적인 힘으로 생각한다. 로크는 3가지의 법 형태-신(神), 시민, 그리고 의견-를 강조했다. 그는 의견의 법칙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짜 복종하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한다. 노엘 노이만은 정치든 윤리든 패션문제에서든 “여론이란 사람들이 자신을 소외시키지 않고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쟁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라고 정의한다.

‘침묵의 나선’은 사람들이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할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 이론은
 매스 미디어의 여론형성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침묵의 나선은 사람들이 소수에 속한다고
 생각할때 그들의 의견을 감추어야 한다고
 느끼는 압력을 뜻한다. 노이만은 TV가
 침묵의 나선 과정을 가속시킨다고 확신한다.

때 그들의 의견을 감추어야 한다고 느끼는 점차적인
 압력을 뜻한다. 노엘 노이만은 TV가 침묵의 나선
 과정을 가속시킨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의 역할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
 가 수용하는 다양한 기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감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견의 분포를 감지하는 제6의 감각기관

노엘 노이만은 여론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식별하
 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한다. 과학은
 사람들이 환경을 감지하는 다섯가지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만 말해왔다. 눈(시각), 귀(소리), 혀
 (맛), 코(냄새), 피부(접촉)가 그것이다. 그런데 노
 엘 노이만은 '제6의 감각기관'으로서 '준통계적 기관'
 (quasi-statistical organ)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즉
 사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감각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사회적 분위기의 모든 이동을 감지하는 안
 테나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노엘 노이만은
 그 분위기의 탐지가 당이나, 사람, 특별한 아이디어
 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생길 때 그것이 거
 의 정확하게 동시에 모두에 의해서 느껴지는 것같은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적한다.
 통계조사나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기 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론의 방향을 감지
 할 수 있다.

노엘 노이만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상태 파
 악(barometric reading)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
 가지의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각자의 의견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현재의 분위기 인지)

둘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뒤에 이
 렇게 생각할 것인가? (미래의 예측)

사람들은 가끔 "내가 어떻게 알아." 하거나 "나는

예언자가 아니야."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중의 분위
 기와 현재 또는 미래를 파악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
 장 자연스럽게 행하는 일이라고 노엘 노이만은 확신
 한다. 그녀는 30년간 서베이를 해오는 동안 사람들
 이 언제나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한다고 믿게 되었
 다. 예를 들면 매년 말 그녀의 알렌스바흐연구소는
 독일 남녀 표본을 뽑아 다음과 같이 물어본다. "내
 년을 희망적으로 보는가 절망적으로 보는가?" 비관
 적으로 본 비율은 질문한 그해의 경제성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해 국
 가 GNP 성장률의 등락에 대해 무서운 예측을 해준
 다.

인간이 공중의 취향과 의견의 기세를 알아내는 능
 력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노엘 노
 이만은 어떤 의견이 늘어나고 어떤 것은 감소하는지
 헤아리는데는 엄청난 에너지의 소모를 요구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추세를 감지하는데 필요한 엄청난 노
 력은 쇠퇴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을 소외시키는 경유
 를 생각할 때 더욱 의미가 있다. "환경을 관찰하는
 데 소모되는 노력은 확실히 누구로부터 배척받거나
 혼자 남게 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소외의 두려움

노엘 노이만에 의하면 소외의 두려움이 침묵의 나
 선을 가속화시키는 원심력이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
 을 지지하기 위해 스와스모어(Swarthmore)의 심리
 학자인 솔로몬 애쉬(Solomon Asch)의 유명한 순응
 (conformity) 연구를 자세히 설명한다. 애쉬는 사
 람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의견과 다를 경우 집단의 압력에 따르게 된다는 것
 을 보여 주었다.

A _____

B _____

C _____

X _____

위의 그림에서 X와 길이가 같은 선은 어느 것인

가? 분명히 A이다. 그러나 전부 B가 옳다고 하는 실험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해진다. 소외감은 특히 자기 생각을 확신하는 사람에게서 심하게 나타난다. “사람들이 나의 고집을 못마땅해 하고 욕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나를 조롱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면 나를 그룹에서 추방하지 않을까?” 애쉬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단의 의견에 따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노엘 노이만은 또한 사람들이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 승자에 속하고 싶은 생각에서 순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중요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제보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이긴 후보를 투표했다고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노엘 노이만은 이것을 뒤늦게 부화뇌동한다거나 자랑하기 위한 시도라고 보지 않는다. 그녀는 이것을 사회적 낙인을 피하기 위한 방어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집단에서 추방되어, 소외되고 조소를 받는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잔인한 징계로 간주된다. 노엘 노이만은 잔혹한 범죄자나 도덕적 영웅만이 사회가 무엇을 수용하든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소속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만족을 원한다. 노벨상 수상자인 마터 테레사도 노엘 노이만의 분석을 지지하는 말을 했다. “가장 나쁜 병은 나병도 아니고 결핵도 아니다. 아무도 존경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배척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나쁜 것이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여론과 동일할 때 말하게 되고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가졌을 때에는 소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소수에 속하는 사람은 침묵을 지키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노엘 노이만은 정확히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

“자기의 의견이 확산되고 다른 사람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있게 그 의견을 말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의견이 터전을 잃고 있다고 느끼는 개인들은 더 유

보적인 태도를 취하고자 할 것이다.”

노엘 노이만은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쉽게 그의 견을 포기하고 마음을 바꾸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사람이 풍향계는 아니다. 그러나 역풍과 싸우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머리를 집어넣어 자신의 생각을 고수할지도 모른다. 그들의 침묵은 아마 눈에 안 띄게 지나가거나 무언의 동의로 간주될 것이다.

1988년 대통령 선거 첫 토론에서 조지 부시는 알파벳 ‘L’자를 사용했다. 그는 마이클 듀카키스가 무신론자와 범죄자, 어린이 강간범을 변호했던 조직인 ‘ACLU의 정식 회원’으로서 대단한 자유주의자라고 불렀다. 미국의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의 입장에 타격을 줄 이 말에 대하여 겁을 냈다. 그리하여 10여년간 보수주의가 성했으며, 자유주의는 퇴조했다. 자유주의자들은 미국자유주의연맹(ACLU)도 애국자 노스(Ollie North)를 변호했다고 항의하거나, 사회적 안정에 대한 부시의 입장이나 중국과의 관계가 원래 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엘 노이만이 예측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침묵하면서 고통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알렌스바흐연구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말할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했다. 낙태라는 주제를 생각해보자.

“앞으로 5시간의 기차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누군가가 낙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기차 테스트’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낼 가능성을 결정하는 여러가지 요인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첫번째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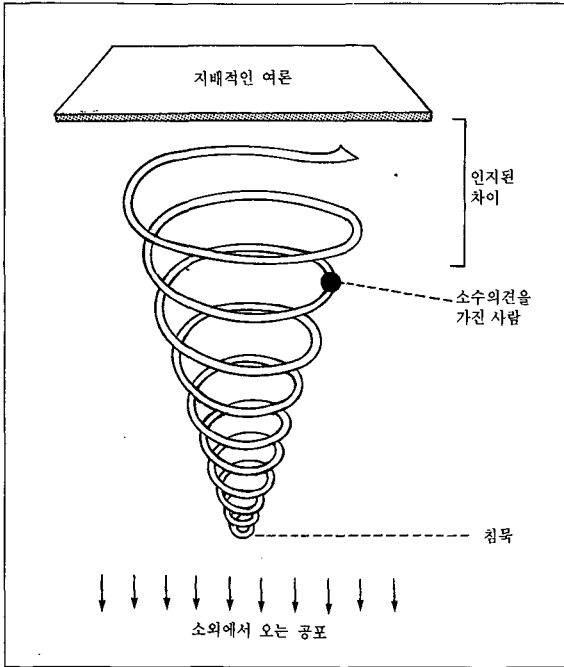
1) 다수가 가진 입장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 의견에 속한 사람보다 그들의 견해를 더 많이 표명하려고 한다. “시대 정신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느낌이 말을 하도록 한다.”

2) 만약 현재의 의견 분위기를 감지한 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말하려는 의지는 그 미래의 추세에 의존하게 된다.

3)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 게보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말하려고 한다.

노이만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공중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한다. 또 비평가들은 소외의 두려움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침묵에 대한 하향나선



소외당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 친구가 적보다 안전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 4) 자존심이 약한 사람들이 침묵한다.
- 5) 남성, 젊은이, 중간계급과 상류층이 더 잘 말한다.
- 6) 현존하는 법이 다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고무시킨다.
- 7) 여러가지 집단은 각각의 신념에 차이가 있다.

가속화되는 침묵의 나선 과정

노엘 노이만이 여론 형성 모델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초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공중의 감정 추세를 감지하는 능력
- △소외에 대한 두려움
- △소수 의견을 표현하기 싫어함

노엘 노이만은 소수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의 곤경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이들 요인들을 묶어서 언급한다.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것을 영원히 두려워하며 산다. 그리고 어떤 의견이 커지고 어떤 의견이 줄어드는지 알기 위해 환경을 주의깊게 관찰한다. 만약 자기의 생각이 지배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자신의 견해가 지지기반을 잃고 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감추고 조용해지게 된다. 한 집단은 자신있게 의견을 표출하는 반면 다른 집단은 입을 다물게 되기 때문에 전자는 공격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후자는 숫자보다 약해지게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를 표현하게 하거나 침묵하게 만들며, 나선형의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은 소수의 이동이 침묵의 나선을 가져오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검은 점은 자신의 의견과 지배적인 의견 간에 약간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을 나타낸다. 1980년 가을 카터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상태였다. 이 지점까지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 그러나 소외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자 말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해지게 된다. 레이전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게 되고 차량에 카터 지지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그만 두게 된다. 카터의 지지층이 줄어들지는 않은 상태인데 외적인 위세는 약해졌다. 그러나 레이전을 지지하는 공화당의 열기도 줄어들지 않아서 카터의 지지자들은 카터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위축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레이전의 확실한 우세는 민주당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과 다수의견 간의 차이를 느끼도록 하여 마침내 그들은 누가 이길 것인가의 내기에서 물러나고 침묵으로의 하향 곡선을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지배적인 의견과 자기 의견 간의 불일치가 크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사회적인 압력을 더욱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순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압력이 더 커지면서 소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입장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결과는 로널드 레이전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타난 것이다.

미디어의 강력한 역할

노엘 노이만은 매스 미디어가 침묵의 나선 과정에서 소수의 침묵을 가속화시킨다고 믿는다. 모든 인간은 여론의 분위기를 분석하는 준통계적 기관을 갖추게 되지만 그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속적인 자료를 요구한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용하는 정보의 극히 일부분만을 얻게 된다. 인쇄매체와 전파매체가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 대부분을 제공한다.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은 각각의 미디어는 인간의 신체 가운데 특정 감각기관의 연장이라고 했다. 노엘 노이만은 모든 미디어 형태를 가설적인 제6의 감각기관의 대리인으로 생각하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기능한다고는 믿지 않는다.

1940년 에리 카운티 투표 연구 이후 10여년 동안 미국의 미디어 사회학은 독자나 투표자가 갖고 있는 선택적인 노출이 인쇄매체나 전파매체의 설득적 효과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유럽의 다른 학자들과 노엘 노이만도 미디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강화하기만 한다는 주장에 반대한다. 노이만은 선택적인 노출이 인쇄매체를 통한 태도변화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현재의 다양한 신문, 잡지 등에서 독자가 상충되는 의견을 피하기는 간단하다. 그러나 노엘 노이만은 TV의 경우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매스 미디어의 효과는 선택적인 노출이 어려운 만큼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은 시골마을에서 행해지는 파행적인 포커 게임에 대한 설명이 그녀의 주장을 대변해준다.

한 농부가 금요일에 일당을 받았다. 그는 매주 어느 선술집 뒷방에 가서 늘 몽땅 잃었다. 몇분 뒤 한 친구가 그를 불러 내어 “그 사람들과 게임하지 말어. 그들은 너를 속이고 있어.”라고 충고한다. “그래 나도 뭔가 속임수가 있다는 것은 알아. 하지만 이게 시골에서는 유일한 게임이야.”라고 소리친다.

TV는 흔히 시골에서 유일한 오락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연구자들이 항상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노엘 노이만은 말한다. 그들은 실험실에서 미디어 효과 테스트를 하려고 하지만 TV의 위력을 가

져오는 ‘편재성’(ubiquity), ‘누적성’(cumulation), ‘공명성’(consonance)를 실험실에서 관찰할 수는 없다. 편재성이란 TV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것이고, 누적성이란 계속해서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공명성이란 한가지 견해만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요인들이 선택적인 노출을 약화시키고 지배적인 의견에 대한 전체 국가의 판단을 치우치게 한다.

미디어에 의해 증폭되는 잘못된 합의의 예로서 노엘 노이만은 독일 언론인들이 독일 국민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 태도를 인용하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논평가들은 독일의 유물론과 딱딱함, 권위주의에 대해 계속 나쁘게 말했다. 이러한 것들과 또 다른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이 TV에 스며들었다. 알렌스바흐 연구소의 연중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포함시켰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독일인의 가장 좋은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1952년에는 4퍼센트만이 ‘하나도 없다’고 응답했는데, 1962년에는 14퍼센트가, 1972년에는 20퍼센트가 ‘한 가지도 좋은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노엘 노이만은 매스 미디어가 소수처럼 보이는 다수를 만들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TV는 여론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창조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지지 연구들

독일인의 특성에 대한 서베이는 노엘 노이만이 패션, 아이디어, 정치분야에서의 일시적 유행이 나타날 수 있는 침묵의 나선과정 설명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중의 하나일 뿐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북미인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슈와 정치인에 대한 독일인의 태도를 보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연구자들도 비슷한 지지 자료를 수집했다. 예를 들면 위스컨신대학교의 글라인(Carrol Glynn)과 맥레오드(Jack McLeod)는 앞에서 언급한 레인건의 놀라운 승리에 대해 침묵의 나선이론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했다.

노엘 노이만은 침묵의 나선이론이 과거 몇세기동안 철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의 인정을 받아왔다고 말

다원적 무지이론은 침묵의 나선이론과 비슷해 보이지만 노이만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에 비해 다원적 무지이론은 사회적 여론을 파악하는 개인의 정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다. 그녀는 로크, 흄, 루소, 괴테, 제임스 매디슨 등의 사상을 인용한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이 프랑스 혁명 전의 종교 쇠퇴에 대해 분석한 것은 침묵의 나선현상을 설명하는 최초의 것이었다고 믿고 있다.

“오래된 믿음에 계속 매달리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들은 실수하는 것보다 소외당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다. 그들은 마음 속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다수의 편에 섰다. 이런 식으로 한 편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처럼 되었다. 그리고 정확히는 이런 이유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책임이 있던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비판 : 나선의 핵이 무엇인가

점차적인 침묵이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한 전형적인 반응일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자신들이 소수 의견을 가졌다고 진짜로 확신하는가? 노엘 노이만의 이론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공중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평가한다. 비평가들은 사회적 분위기의 인지를 ‘신비한 재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원적 무지’(pluralistic ignorance)라고 하는 편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생각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지배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은 교만해지는 경향이 있다.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적 관측에 대해 죄스러워 한다. 그러나 양쪽 모두 실제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엘 노이만은 사람들이 생각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침묵하게 된다’면 그들의 준통계적 재능을 잃는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유의 행동이 항상 나타나기보다는 예외적이라

고 보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누가 옳은지 확인할 수 없다. 다원적 무지이론은 애그뉴(Agnew)가 말했던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라는 말이 왜 미국민의 교감신경을 건드렸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침묵의 나선이론이 갖고 있는 기본 전제를 평가절하하는 셈이 된다.

비평가들은 또한 소외의 두려움앞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신념에 의해서든 고집에 의해서든 계속 의견을 밝힌다. 노엘 노이만은 목소리를 내는 소수가 소외의 두려움에 개의치 않고 나선의 꼭대기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녀는 이같이 솔직한 신념가들을 ‘강경한 비순응자’(hardcore nonconformists)라고 부른다. 그녀는 이같이 확고한 개인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용기(또는 어리석음)를 높이 사고 그들이 공중의 감정을 이끌 미래의 희망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노엘 노이만에게 있어 강성 주장자들은 예외적인 사람들이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침묵의 나선으로 빨려 들어간다. 비순응자인 소로(Henry David Thoreau)는 그의 시민불복종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다.

“규칙을 깨뜨리기는 항상 쉽다. 그러나 사막의 유랑자들조차도 여론에 저항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2

다원적 무지이론

다원적 무지란 어떤 문제에 대해 소수의 의견을 다수의 의견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아니면 다수의 의견을 소수의 의견으로 잘못 파악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서, 1920년대에 알포트(Floyd Allport) 등의 심리학자들이 사회가 급격히 보수화되는 변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기 시

작했다.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인식하는 과정에는 두가지의 사회심리학적 성향이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첫째는 문화적 편견(cultural bias)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자신의 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관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고, 또 하나는 거울반사인지(looking-glass perception)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여 남도 나처럼 생각하리라고 믿는 경향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문제에 대해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도덕적 또는 권위주의자에 의해 심한 압제를 받거나 아니면 사회적 다수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소외감이 팽배할 때 순식간에 사회에 퍼질 수 있는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다원적 무지는 또한 정치적 문제 등 찬반이 뚜렷한 논쟁적 이슈에서 명확히 나타난다.

오고만(H. J. O'Gorman)과 게리(S. L. Garry), 테일러(D. G. Taylor), 카츠(E. Katz) 등은 이러한 개념을 이용, 다원적 무지이론(pluralistic ignorance theory)의 가설로서 체계화시켜 노엘 노이만의 침묵의 나선이론과 함께 현재 매스 미디어의 강효과를 입증하는 이론적 준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영향을 받아 집단의 의견을 따르려는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 과정에서 소속 집단의 의견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원으로 매스 미디어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다원적 무지 이론은 침묵의 나선 이론과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노엘 노이만이 다수의 의견을 따르게 되는 심리적 과정의 일부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에 비해 다원적 무지이론은 사회적 여론을 파악하는 개인의 정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다원적 무지이론은 거울반사 이론이란 개념을 도입하여 그 정확성을 실제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원적 무지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다원적 무지 = PA - Pa

(PA : 다수 의견 A를 찬성하는 사람의 실제 비

율, Pa : A가 다수의견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3

제3자 효과이론

제3자 효과(the third effect)란 설득적 메시지에 노출된 사람들은 남이 나보다 더 그 메시지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즉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나'도 '남'도 아닌 '제3자'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슬레이(Jeter Isley)라는 사회학자가 2차대전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다가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제3자 효과의 배경은 이렇다.

태평양의 한 섬에 백인장교와 흑인사병으로 구성된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일본군이 이 부대의 흑인사병들에게 투항하라는 전단을 뿌렸는데 실제 이 전단을 보고 동요를 보인 것은 흑인사병이 아니라 백인장교들이었다는 것이다. 흑인사병들의 탈주를 우려하여 곧바로 부대를 철수했다는 기록이다.

1957년에는 컬럼비아대학교 신문대학원의 데이비슨(W. P. Davison)이 서독의 외교정책에 미친 신문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편집자들이 제3자 효과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편집자들은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독자들은 영향을 덜 받지만 그렇지 않은 독자들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편집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자 효과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디어 종사자들에게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편견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메시지 송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제3자 효과는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는 메시지 그 자체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함께 노출된 제3의 영향에 대한 인지적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